



보도시점 (전매체) 11. 25.(월) 10:30

‘컴업(COMEUP) 2024’ 그 시작을 알리다

- 12월 11일부터 12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외 혁신 스타트업,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
- 글로벌 창업·벤처 생태계 구성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컨퍼런스, 전시·피칭 및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등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5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글로벌스타트업센터에서 ‘컴업(COMEUP) 2024’의 시작을 알리는 언론 브리핑을 개최했다.

올해로 6번째를 맞는 컴업은 한국의 우수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전 세계에 알리고, 국내외 스타트업, 투자자 등 글로벌 창업·벤처 생태계 구성원이 교류하는 장으로서, ‘19년부터 시작되었다.

컴업 2024는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며, 해외 40여개국의 혁신 스타트업, 투자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 컴업의 슬로건은 스타트업이 국가·기술의 경계를 넘어 전세계 혁신을 주도한다는 의미의 ‘Innovation Beyond Borders’이며, 딥테크, 인바운드, SIS(Sustainable Innovation by Startup)를 세부 주제로 컨퍼런스, 피칭,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컴업의 가장 큰 특징은 그간 컴업이 개최되었던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떠나 코엑스로 이동하여 2배가 넘는 공간에서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로서의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첫 번째로 해외 스타트업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정부의 순방, 해외 전략 행보 및 ODA 성과를 컴업과 연계하여 UAE, 일본, 우간다, 콜롬비아 등 총 40여개국 150여개의 스타트업과 투자자 등이 전시, 피칭, 컨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UAE, 일본, 인도 등이 국가관을 운영할 예정이며, ODA를 통해 한국의 청년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우간다, 콜롬비아도 별도 전시관을 운영한다. 아프리카 개발은행도 컴업에 참여하여 아프리카의 유망한 스타트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두 번째는 현장에 방문한 해외스타트업을 위한 인바운드 프로그램을 강화 한다. 한국의 주요 창업·벤처 정책 및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정책홍보관을 운영한다. 그리고 현장에 방문한 해외 스타트업에게 비자 발급 및 한국 정착 등에 대한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외국인 창업경진대회인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데모데이를 통해 우수 외국인 창업가에 총 40만불 규모의 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세 번째, 벤처·스타트업의 탄소중립 관련 이해도를 높이고, 딥테크 기업과 대기업 간 탄소중립 분야 협업 사례를 전파하기 위한 특화 세션도 마련한다. SIS* 컨퍼런스를 통해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및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의 육성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대기업과 협업 중인 딥테크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전시관을 마련하여 기후테크 분야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성장 사례를 알리고,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한 리버스 피칭**과 멋업도 함께 진행된다.

* Sustainable Innovation by Startup

** 혁신적 기술을 필요로 하는 대·중견기업이 스타트업에게 역으로 협력 방안을 제시

네 번째, 글로벌 투자자와의 교류를 확대하였다. 국내외 벤처캐피탈과 국내 유망 벤처·스타트업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글로벌 투자 협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컴업 연계 행사로 12월 10일(화)부터 12일(목)까지 3일 간 SKY 31 컨벤션에서 K-Global Venture Capital Summit 2024이 열릴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국내외 VC 및 스타트업 130여명이 참여하여 피칭, 네트워킹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 다양한 연계 행사를 마련하였다. 중기부를 비롯해 10개 정부 부처가 협업해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4 왕중왕전과 도전적 의지로 혁신을 만들어온 모범 벤처·창업기업들을 시상하고 성공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97년부터 시작된 벤처·창업 진흥 유공 포상 시상식도 캠업과 연계하여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이외에도 '글로벌', '딥테크'를 키워드로 하여 총 24개의 컨퍼런스 세션을 운영하며, 키노트 스피치에는 최근 한국 스타트업 최초로 사우디 아람코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인 와에드 벤처스에서 투자를 유치한 AI 반도체 기업 리밸리온의 박성현 대표와 와에드 벤처스 관계자가 함께 연사로 나서며, 우주 발사체 기업인 이노스페이스의 김수종 대표가 연사로 참여한다.

총 150여개 전시부스에는 약 260여개의 혁신 스타트업이 참여하여 제품 및 기술을 전시하고, 올해는 일반 참관객의 국내외 딥테크 분야 혁신 기업·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딥테크 기술별 전시존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처럼 캠업 2024는 국내 최대의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로서 국내외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를 하나로 연결하는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캠업을 통해서 전세계 스타트업이 만들어내는 혁신의 모습과 스타트업의 혁신이 만들어 내는 미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말하며, “캠업이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타트업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캠업 2024는 누구나 캠업 누리집(<https://comeup.org>)을 통해 사전등록 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를 통해서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창업정책관실 글로벌창업팀	책임자	과장	진수웅 (044-204-7680)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박강범 (044-204-7684) 곽수진 (044-204-7617)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COMEUP : 움트다 등의 사전적 의미로, 스타트업의 잠재적 가능성이 다양하게 발현된다는 뜻

- (행사명)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 2024
- (일시/장소) '24. 12. 11(수) ~ 12(목) / 서울 코엑스 D홀
- (대상) 스타트업, 벤처캐피탈(VC), 글로벌 기업 등 국내·외 창업 생태계 관계자
- (슬로건) Innovation Beyond Borders
 - * 의미 : 스타트업이 국가·기술의 경계를 넘어 전세계 혁신을 주도한다
- 주요 프로그램(안)
 - (컨퍼런스) 50여명의 국내외 패널(연사)가 참여하여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와 스타트업계의 주된 관심사항을 공유
 - * 리밸리온 박성현 대표, 와에드 벤처스 카마르 아프탑 투자책임자 등
 - (컴업스타즈) 컴업을 대표하는 국내외 혁신 스타트업 140개사를 선정하여, 글로벌 투자 비즈매칭·네트워킹, 해외진출 기회 등 제공
 - (오픈이노베이션) 엔비디아, 로레알, 현대차 등 20여개사 국내외 글로벌 중견·대기업이 참여하는 스타트업과의 협업의 장
 - *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다쏘시스템, 엔시스, 로레알, 현대자동차 등
 - (글로벌 프로그램) UAE, 인도, 일본, ITC 등으로 글로벌커뮤니티 존을 신설하여, 각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소개하는 글로벌 협업 추진
 - * UAE, 인도, 일본, 독일, 우간다, 콜롬비아 등
 - (연계 프로그램)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데모데이, 벤처·창업 진흥 유공 포상식, K-Global Venture Capital Summit 2024 등 연계 개최